

제주식물을 사랑한 식물채집가 에밀 타케신부

정홍규*

I. 서론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열대우림의 개발, 생태환경의 파괴, 인간의 야생동물 서식지 침범, 쓰레기 버리는 문화, 기후위기 그리고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지구환경은 더 이상 자연과학의 한 분야가 아니라 인류의 존망이 직결된 생태평화로 인식되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숲, 나무, 식물에 대한 관심은 ‘다양성의 파괴와 대량 멸종’을 뛰어 넘어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삶’을 지향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시기이다. 역설적으로 ‘팬데믹 코로나 19’는 화석연료 문명의 티핑 포인트를 호출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운명에 초점을 맞춘 생태철학적 윤리와 전 세계적 시민 연대정책이 긴급히 요구된다.

마스크 착용이 시작된 인류가 보편적 호흡을 공유하는 식물에게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을까? 인류 미래의 길목에 서 있는 오늘날 공존의 미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주학 선구자 7인 중 한 명으로¹⁾ 우리나라 1900년 초기 식물채집가 에밀 타케신부(1873년~1952년)를 제안 하고자 한다. 우리의 현 상황이 멸종하기 직전이라 생각하고 자연에게 도움을 다시 청해야 된다는 시점에서 에밀 타케가 약관 30세 나이에 초인적으로 한반도의 남쪽 제주도, 특히 한라산 자락의 서귀포에서 채집한 식물 1만여 종에서 ‘뉴 노아의 방주’를 건축할 수 있다는 비전을 찾고자 한다²⁾. 그래서 우선 에밀 타케식물의 삶의 자리를 정확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 잠들어 있는 우리 식물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해 볼 것이다.

식물학계에서는 1907년부터 1913년 까지를 한국식물분류학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긴 때라고 평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타케신부의 제주도 채집활동 주로 1907년(34세)부터 1913년(40세)까지 초인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체 채집 표본 수는 복제표본과 중복표본을 합쳐서 약 1만개로 추정한다. 파리와방전교회 소속인 일본의 전설적인 식물학자 포리신부에 대한 일본의 연구자료인데 포리신부는 신종 700여 식물을 채집하였고 자신의 이름을 붙은 종소명 식물만하더라도 70종이다. 아직 우리 한국의 경우 타케신부의 경우에는 식물리스트와 컬렉션, 타케티와 이명처리 등 아직은 연구 중 이어서 아쉽다³⁾. 이처럼 우리 토종식물 특히 110년전

* 천주교대구교구 신부, 에밀타케식물연구소 이사장.

1) “숨겨진보석제주를 알린 선자 7인의 발자취”, 제주의 소리, 2010.01.12.

2) 『에밀타케의 선물』, 2019, p.239.

제주 한라산식물에 대한 채집과 표본에 대한 에밀 타케신부의 역할은 아주 크고 중요하다. 일제강점기부터 20세기 초반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의 한반도 식물 채집품은 프랑스 선교사 타케와 포리에 의해서 원천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표본들이 생태 역사적 국보급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식물원에 산재된 자료의 복원과 ‘식물주권’으로써 환수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들과 식물학계에서도 전혀 관심이 없다. 전 세계에 난민처럼 흩어진 식물 표본 리스트 발굴과 역사 문화 자료 발굴을 통해서 제주학을 넘어서, 에밀 타케신부가 한국과 “왕벚나무의 세계화”를 촉매하는 인물로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식물분류학계에서나 표본들이 연구되거나 심지어 한국 가톨릭과 파리외방전교회의 본부인 프랑스 파리측에서 식물채집가로서의 에밀 타케신부의 업적에 대해 무지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밀 타케신부에 대한 자료발굴과 식물 업적 재평가를 통하여 단순한 100년 전 식물표본의 복원을 넘어서 ‘횡단적 지평4)’을 확대하여 세계적으로는 공동체인 기후위기와 지역적으로는 신자유주의로 고착화된 한반도가 처한 생태위기에 대한 해결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식물을 단순한 재료나 자원으로 취급하는데서 벗어나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생물종으로서 식물과 인간생명에 대한 관계를 리모델링해야 할 시점이다. 이 땅에서 살다 간 수 많은 토종 풀꽃들을 기억하고 보존하며 식물의 약리작용을 발견하여 전염병을 예방할 비전을 제주도가 보다 주체적으로 생산함으로서 지금의 지구와 동아시아가 처한 위기를 이겨 나갈 집단지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I -1. 발자취와 지명고증⁵⁾

에밀 타케신부는 1873년 10월 30일 프랑스 북부 캄브레드(Cambrai)교구의 노르드(Nord)지

- 3) 일본식물대채집가 URBAIN FAURIE신부,
https://www.jstage.jst.go.jp/article/bunruichiri/1/4/1_KJ00002593841/_pdf/-char/ja
 포리신부와 식물채집, <http://kmunakata.sakura.ne.jp/hanazono/faurie.html>
- 4) 『펠릭스 가타리의 생태철학』, 신승철, 2016, p.36.
- 5) 『125년의 역사 속으로(범일 성당 화보집, 1889~2014)』, 범일성당 125주년 역사 속으로
 편찬 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범일성당, 2014.
 『광주대교구 50년사』, 천주교 광주대교구, 빛고을 출판사, 1990.
 『교회사 연구 20』, 한국교회사연구소, 2003.
 『드망주 주교 일기』(1911~1937), 드망주 주교 지음, 한국교회사연구소 역주, 가톨릭
 신문사, 1987.
 『뮈텔 주교 일기 2』(1896~1900), 뮈텔 지음, 최석우 옮김, 한국교회사연구소, 1993.
 『뮈텔 주교 일기 3』(1901~1905), 뮈텔 지음, 최석우 옮김, 한국교회사연구소, 2009.
 『뮈텔 주교 일기 4』(1906~1910), 뮈텔 지음, 최석우 옮김, 한국교회사연구소, 1998.
 『뮈텔 주교 일기 5』(1911~1915), 뮈텔 지음, 최석우 옮김, 한국교회사연구소, 1998.
 『뮈텔 주교 일기 6』(1916~1920), 뮈텔 지음, 김성태 옮김,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뮈텔 주교 일기 7』(1921~1925), 뮈텔 지음, 김성태 옮김,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뮈텔 주교 일기 8』(1926~1933), 뮈텔 지음, 김성태 옮김,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성유스티노신학교 1914~1945』, 김정우, 흥익포럼, 2013.

방, 케누아(Quesnoy)지역, 에크(Heck)에서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1892년 9월 23일 파리의방전교회 신학교에 입학하여 1897년 9월 27일까지 수학하였고, 24세에 사제 서품을 받은 후 선교사로 1897년 10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하여 1898년 1월 5일 제물포항을 거쳐 서울에 도착하였다. 장호원성당(현 감곡매곡성모순례지 성당)의 초대 주임신부 임 가밀로 신부에게 조선말을 배운 후 1898년 4월부터 부산본당(현 범일성당) 3대 주임신부로 부임하여 낙동강 서쪽과 경상남도 남쪽지역을 맡아 선교활동을 하였다. 진주와 거제도 선교를 거쳐 1899년 6월 29일에는 진주본당, 마산성당(현 완월동성당) 초대 주임신부로서 활동하였다⁶⁾.

1902년 4월 20일 제주도로 발령을 받아 무세 신부의 후임으로 서귀포 한논본당(현 서귀포성당) 3대 주임신부로 부임한다. 한논본당은 조선인 선교사 김원영(아우구스티노, 1869~1936)신부가 제주도에 부임하여 1900년 6월 12일에 만든 제주본당(현 제주중앙성당의 전신)의 첫 번째 자본당이다. 한논 분화구안에 형성된 4칸짜리 초가를 성당부지로 구입해 한논성당을 세우고 첫 임지인 서귀포를 비롯한 산남지역에서 열정적인 전교를 펼친다. 그 결과 서귀포시 호근동(지금의 삼매봉 북쪽마을)에 한논성당을 설립할 당시 20명이었던 신자는 1901년에 137명으로 늘어났고 예비신자만도 무려 620명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지역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선교가 아니라 급속한 교세확장에만 힘쓴 탓으로 1901년 5월 신축교안을 불러오게 된다. 당시 15만명이 거주했던 제주도에 천주교인 300~700명이 학살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한논성당 2대 신부인 무세(Mousset, 1876~1957)신부는 1900년에 서품을 받고 1901년 5월 첫 사목지인 제주도 한논성당에 부임하여 신축교안의 긴박한 상황을 직접 겪게 되었다⁷⁾.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당시 교구장이었던 뫼텔신부에게 거듭 전임을 요청하여 결국 마산본당으로 떠나게 된다. 1898년부터 부산, 밀양, 김해, 진주, 거제 그리고 마산에서 활발한 선교활동을 하고 있던 타케신부는 무세신부의 뒤를 이어 제3대 한논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하였다⁸⁾. 타케신부는 1902년 4월 20일부터 1915년까지 서귀포 흥로에서 선교하였고, 1902년 6월 17일에서 7월 20일에는 한논본당을 흥로본당(현 서귀포시 서흥동)으로 이전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06년 조선을 방문한 포리신부를 만나기 이전에는 타케신부가 식물채집에 대해서는 언급한 어떠한 자료에도 찾을 수 없다.

식물채집가 포리(Pere Urbain Jean Faurie, 1847~1915)신부는 일본에서 조선과 제주도를 3차례 방문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제1차 방문은 1901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6개월, 제2차 방문은 1906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그리고 제3차 방문은 1907년 5월에서 8월까지의 4개월이다. 포리신부는 총 16개월간 조선과 제주도에 머물면서 우리나라의 식물을 5,000여 점 채집하였고 현재 대부분 교토대학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 제주를 방문한 포리신부는 같은 파리의방전교회 소속의 선교사 타케신부에게 식물채집에 관한 지식과 방법을 전수해 주었을 것이다. 식물채집가 포리의 조선 제2차방문기간인 1906년 9월부터 10월에 포리신부(59세)와 타케신부(33세)는 함께 서귀포 일대와 한라산 1,500m까지 식물채집을 하게 된다. 첫

6) 『125년의 역사속으로(범일성당 화보집, 1889~2014)』, 천주교부산교구 범일성당, 2014.

7) 『신축교안과 제주 천주교회, 제주선교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한국교회사연구소, 1997.

8) 『뫼텔주교일기3』, 뫼텔지음, 최석우옮김, 한국교회사연구소, 2009.

채집에서 한라돌쩌귀, 구슬꽃나무, 산매자를 채집한 기록을 확인하였다. 앞서 언급한 신축교안의 시대상황을 고려 해 볼 때, 타케신부는 민생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식물채집을 시작했다가 점점 그 가치에 몰입하게 되었음을 제주의 여러 상황을 통하여 알 수 있다.

1907년 5월에서 10월에 두 번째 조선을 방문한 포리신부와 함께 서귀포일대와 한라산 정상에서 두 번째 채집이 이루어졌으며 구상나무와 향유, 화살나무 등을 채집하였다. 구체적으로 5월 17일 한라산 1,500m 지대까지 채집이 이루어졌고 해발 1,400m에서 구상나무를 발견하였다. 6월에는 홍로인근 채집, 7월에는 백록담, 8월에는 영실을 거쳐 한라산 정상까지 조사가 이루어졌고 타케신부의 이름이 종소명으로 현명된 겨이삭여뀌(*Persicaria taquetii* H.Lev.koidz)가 채집되었다. 9월에서 10월 사이에 두 차례의 한라산 기슭에서 정상까지 채집을 통해 한라개승마(*Aruncus aethusifolius* H. Lev. Nakai), 두메대극(*Euphorbia fauriei* H.Lev. & Vaniot ex H.Lev.), 왕모람(*Ficus pumila* L.) 등 우리나라 특산종을 발견하였다.

조선을 방문한 포리신부와 두 차례의 식물채집 활동을 경험한 타케신부의 단독 식물채집은 1908년 2월에서 10월에 서귀포와 한라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자료에 의하면 2월 홍로 부근과 바닷가, 4월 8일 홍로일대와 4월 14일 한라산 600미터 지점에 채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4월 14일 한라산 남측 효돈 600미터 지점에서 제주벚나무인 왕벚나무를 채집하였다. 채집된 표본번호 “4638”로 기록된 왕벚나무 채집본은 현재 교토대학교 식물표본실에 보존 중임을 확인하였다. 1908년 5월 5일과 8일, 10일, 12일 네 차례의 채집활동이 이루어졌고 12일에 우리나라 특산식물 가시복분자가 채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08년 6월에 6일 한라산 1,000m 지대와 8일에는 경작지 근처에서 채집활동이 이루어졌다. 8월에는 일곱 차례 채집활동을 하였다. 12일과 13일에 한라산 정상, 17일 한라산 1,600m 지점, 20일과 22일 그리고 25일에는 새섬에서 채집활동이 하였고 28일에도 채집활동을 하였다. 1908년 8월13일 채집된 두잎감자난초 채집본은 현재 도쿄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다. 9월에는 한라산과 영실에서 열 두 차례에 걸쳐 채집활동, 그리고 10월에는 중문과 산방산 등에서 다섯 차례의 채집이 중문면 도순리 근처의 녹나무 채집과 산방산에서 이루어졌고, 10월 25일 구산에서 애기나비나물(*Vicia unijuga* var. *kausanensis* H.Lev.)이 채집되었다. 이처럼 1908년 채집횟수나 채집지역이 점차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09년 계속적으로 제주에서 머무르면서 선교활동과 함께 6월에 두 차례의 한라산 정상에 오르고 1,200m 지점에서 우리나라 특산종 산버들이 채집되었다. 8월에는 한라산 1,500m에서 특산식물 떡버들 채집, 10월에는 한라산에서 돌외를 채집한 자료가 있다. 1909년에는 제주도 외에도 채집이 이루어졌는데 5월에는 목포에서 큰구슬봉이, 인천에서는 특산식물인 능수버들을 채집하였다.

1910년 4월에서 10월에 사이의 채집은 후박나무, 아그배나무, 줄갈매나무 등이고 1910년에 그의 채집기간 중 가장 많은 식물이 채집되었다. 1911년 3월에서 12월 사이에 채집활동의 자료도 찾을 수 있다. 5월에 참나무류와 검은딸기(도쿄대 소장)의 표본채집, 6월과 8월에 백록담까지 올라 특산종 한라장구채와 한라송이풀, 섬잔대 등이 채집되었다. 섬잔대(*Adenophora taquetii* H. Lev)는 발견자 타케신부의 이름으로 현명된 식물이다. 이밖에 왕썸

배, 줄참나무, 산철쭉, 진달래, 추분취 등을 채집하였다. 12월에 왕모람이 채집되었고 특히, 1911년 온주밀감 묘목을 포리신부로부터 14그루를 받아 제주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1912년 3월 26일 뉘시제비꽃, 그리고 4월 14일에서 16일에 이루어진 채집활동에서 샷갓 사초 및 섬싸리냉이 등이 채집되었다. 6월 15일 한라산 1,500m와 8월에도 600m 지역을 살핀 기록이 있고 6월과 10월 사이에 붉가시나무, 참느릅나무, 떡갈나무, 선이질풀 및 골등골나물 등이 채집되었다.

1913년 7월과 8월 사이에 좁네잎갈퀴나무, 소사나무, 천선과나무 등이 채집되었고 9월과 10월에 참산부추, 까치박달, 메밀жат밤나무, 쇠무릎, 느티나무 및 이삭여뀌 등 채집이 이루어졌다. 즉 제주에서 13년간 살았던 에밀타케신부가 1906년 9월에서 11월과 1907년 5월에서 10월에 이루어진 포리신부와의 채집에서 얻은 경험으로 1908년부터 1913년까지 6년간의 단독 제주 채집활동에서 제주식물 10,000여점 이상을 채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⁹⁾.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소집명령을 받은 41세의 타케신부는 1914년 제주를 떠나 8월 15일 대구에 도착하게 된다. 11월 소집연기와 1915년 3월 2일에 징집면제가 이루어졌고 홍로성당에 재입하면서 목포 산정동 성당과 나주 계량성당에서 사목활동을 하게 된다. 1922년 8월 6일 49세에 대구 유스티노신학교 교수로 부임하기 전까지, 목포, 무안, 나주, 진도, 장성, 영광, 함평 등 전라지역과 제주도 선교를 겸무한 자취와 자료가 남아있다. 특히 1928년 10월 23일에서 1940년 6월 25일까지 대구 유스티노신학교 3대 교장을 역임하였다. 1940년 67세 타케신부는 고령으로 교장직 사임 후에도 평교수로 근무하며 샬트르성바로로 수녀회와 성영회 책임신부로 활동하였다. 1948년 5월 8일에 타케신부의 파견수도회 파리의방전교회가 대구에서 완전 철수하게 됨에 따라 교구청에서 근무도 하였다. 1950년 77세 되던 해에 6·25전쟁이 있었고 8월에 포항으로 잠시 피난하여 돌아오기도 하였지만 1952년 1월 27일 79세에 대구 신학교 침실에서 심장마비로 임종하기 까지 대구에 머물며 활동하였다. 현재 대구대교구 성직자 묘지에 묻혀있다. 1964년 12월 15일 대구교구청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대구 천주교 주교관 내 도서관에 보관 중이던 식물표본과 식물분류학 관계 문헌자료들이 소실되었다.

II-2.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식물 표본들

세계의 식물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탐색해본 결과, 20여개의 식물원에서 종소명에 타케의 이름이 들어간 타케티 125종과 타케의 채집본이 있는 컬렉터 타케식물 1,670종을 찾을 수 있었다. 각 식물원에 있는 타케 식물과 타케티의 종수, 타케티 구체적 목록은 다음과 같다.¹⁰⁾ 2018년에 GBIF(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에 타케신부의 표본이 자료로 발표되어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나 자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9) “식물채집가 E.J. Taquet 신부의 9년간(1906-1914년) 제주도 기록”, 장진성, 2019.

10) 타케티와 컬렉터 타케 식물의 데이터는 어디까지나 비전문가입장에서 현재까지 탐색한 결과임을 밝히며, 본 연구에 기재되어 있는 타케티와 컬렉터 타케 식물의 수치는 연구자가 전 세계 식물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결과 수치임을 밝힌다.

1) 일본 도쿄대 부속식물원(컬렉터 타케타 식물 27종, 타케타 2종)

http://umdb.um.u-tokyo.ac.jp/DShokubu/herbarium/en_ver2/Collection/result.php

타케타 겨이삭여뀌 (*Polygonum taquetii* H.Lév.)
섬평의비름 (*Sedum taquetii* Praeger.)

2) 미국 하버드 아널드 식물원(컬렉터 120종, 타케타 16종)

<http://kiki.huh.harvard.edu/databases/>

타케타 제주산버들 (*Salix taquetii* H. Léveillé.)
바위수국 (*Hydrangea taquetii* H. Léveillé.)
제주가시나무 (*Rosa taquetii* H. Léveillé.)
까마귀베개 (*Microrhamnus taquetii* H. Léveillé.)
청미래덩굴 (*Smilax taquetii* Léveillé.)
천선과나무 (*Ficus taquetii* H. Léveillé & Vaniot.)
채진목 (*Pyrus taquetii* H. Léveillé.)
아그배나무 (*Crataegus taquetii* H. Léveillé.)
좀갈매나무 (*Rhamnus taquetii* H. Léveillé.)
녹나무 (*Cinnamomum taquetii* H. Léveillé.)
담쟁이덩굴 (*Vitis taquetii* H. Léveillé.)
광나무 (*Ligustrum taquetii* H. Léveillé.)
가새덜꿩나무 (*Viburnum taquetii* Léveillé.)
백량금 (*Ardisia crispa taquetii* H. Léveillé.)
한라평의 다리 (*Thalictrum taquetii* H. Léveillé.)
화살나무(*Microrhamnus taquetii* H. Léveillé.)

3) 영국 큐왕립식물원 (컬렉터 97종, 타케타 19종)

<http://apps.kew.org/>

타케타 두메담배풀 (*Carpesium taquetii*)
사마귀풀 (*Murdannia taquetii*)
하늘지기 (*Fimbristylis taquetii*)
참지네고사리/반들고사리 (*Dryopteris taquetii*)
참골무꽃 (*Scutellaria taquetii*)
아그배나무 (*Crataegus taquetii*)
한라송이풀 (*Pedicularis taquetii*)
뽕잎피나무 (*Tilia taquetii*)
한라노루오줌 (*Astilbe thunbergii* Miq. var. *taquetii* H.Lév.)
흰도깨비바늘 (*Bidens taquetii* H.Lév. & Vaniot.)
녹나무 (*Cinnamomum taquetii* H.Lév.)

큰개수염 (*Eriocaulon taquetii* Lecomte.)
 손바닥난초 (*Gymnadenia taquetii* Schltr.)
 섬평의비름 (*Sedum taquetii* Praeger.)
 광나무 (*Ligustrum taquetii* H.Lév.)
 겨이삭여뀌 (*Polygonum taquetii* H.Lév.)
 개미자리 (*Sagina taquetii* H.Lév.)
 해변취/큰각시취 (*Saussurea taquetii* H.Lév. & Vaniot.)
 올챙이고랭이 (*Schoenoplectus taquetii* Palla.)

4) 영국 자연사 박물관 (컬렉터 타케식물 88종, 타케티 4종)

<http://data.nhm.ac.uk>

타케티 반들고사리 (*Dryopteris taquetii* Christ.)
 뽕잎피나무 (*Tilia taquetii* Schneid.)
 죽대 (*Polygonatum taquetii* H.Lév. & Vaniot.)
 좀고추나물 (*Hypericum taquetii* H.Lév.)

5) 영국 에딘버러왕립식물원(926종, 타케티 57종)

<https://data.rbge.org.uk/>

타케티 섬잔대 (*Adenophora taquetii* H.Lév.)
 한라노루오줌 (*Astilbe taquetii* (H.Lév.) Koidz.)
 싸리냉이 (*Cardamine taquetii* H.Lév. & Vaniot.)
 메꽃 (*Convolvulus taquetii* H.L.)
 큰개수염 (*Eriocaulon taquetii* Lecomte.)
 한라송이풀 (*Pedicularis taquetii* Tsoong.)
 제주큰물통이 (*Pilea taquetii* Nakai.)
 겨이삭여뀌 (*Polygonum taquetii* H.Lév.)
 좀갈매나무 (*Rhamnus taquetii* (H.Lév. & Vaniot) H.Lév.)
 제주가시나무 (*Rosa taquetii* Levl.)
 줄말 (*Ruppia taquetii* H.Lév.)
 털기름나물 (*Seseli taquetii* H.Wolff.)
 갯장구채 (*Silene taquetii* H.Lév.)
 뽕잎피나무 (*Tilia taquetii* Schneider.)
 갯취 (*Senecio taquetii* H.Lév. & Van.)
 좃대승마 (*Cimicifuga taquetii* Leveille.)
 사마귀풀 (*Aneilema taquetii* H. Lév.)
 백량금 (*Ardisia crispa* (Thunb.) A.DC. var. *taquetii* H.Lév.)

흰도깨비바늘 (*Bidens taquetii* H.Lév. & Vaniot.)
 섬거북꼬리 (*Boehmeria taquetii* Nakai.)
 유채 (*Brassica oleacea* L. var. *taquetii* H.Lév.)
 겨자 (*Brassica taquetii* H.Lév.)
 송금나무 (*Callicarpa taquetii* H. Lev.)
 좀담배풀/두메담배풀 (*Carpesium taquetii* H.Lév.)
 녹나무 (*Cinnamomum taquetii* H.Lév.)
 탐꽃 (*Calamintha taquetii* Leveille and Vant.)
 좁은잎영경귀 (*Cnicus taquetii* H.Lév. & Vaniot.)
 화살나무 (*Microrhamnus taquetii* H. Lev.)
 아그배나무 (*Crataegus taquetii* H. Lev.)
 제주암고사리/섬 잔고사리 (*Diplazium taquetii* C.Christ.)
 윤관나물아재비 (*Disporum taquetii* H.Lév.)
 반들고사리/참지네고사리 (*Dryopteris taquetii* Christ.)
 우산물통이 (*Elatostema taquetii* H. Lev.)
 천선과나무 (*Ficus taquetii* H. Lev.)
 가는네잎갈퀴 (*Galium taquetii* H.Lév.)
 큰구슬붕이 (*Gentiana taquetii* H. Lev.)
 바위수국 (*Hydrangea taquetii* Levl.)
 뚝탄지 (*Inula taquetii* H.Lév.)
 뿌리뱅이 (*Lactuca taquetii* H. Lév. & Vaniot.)
 광나무 (*Ligustrum taquetii* H. Lev.)
 어리연꽃 (*Limnanthemum taquetii* H.Lév.)
 애기괭이밥 (*Oxalis taquetii* Kunth.)
 궁궁이 (*Peucedanum taquetii* H.Wolff.)
 섬질경이 (*Plantago taquetii* H.Lév.)
 애기풀 (*Polygala taquetii* H.Lév.)
 개구리жат (*Ranunculus taquetii* H.Lév.)
 한라진달래 (*Rhododendron taquetii* H.Lév.)
 추분취 (*Rhynchospermum taquetii* H.Lév.)
 명석딸기 (*Rubus taquetii* H.Lév.)
 해변취/큰각시취 (*Saussurea taquetii* H.Lév. & Vaniot.)
 참골무꽃 (*Scutellaria taquetii* Vaniot & H. Lev.)
 산미역취 (*Solidago virgaurea* L. var. *taquetii* H.Lév.)
 사데풀 (*Sonchus taquetii* H.Lév.)
 잠자리피 (*Trisetum taquetii* Hack.)

모새나무 (*Vaccinium taquetii* H.Lév.)
새완두 (*Vicia taquetii* H.Lév.)
한라부추(*Allium taquetii* H.Lév. & Vaniot.)

6) 일본 국립과학박물관(14종, 타케티 2종)

<http://www.type.kahaku.go.jp/TypeDB/>

타케티 두메담배풀/좁담배풀 (*Carpesium taquetii* H.Lév.)
사데풀 (*Sonchus taquetii* H.Lév.)

7) 프랑스 파리 국립자연사박물관(331종, 타케티 10종)

<https://science.mnhn.fr/>

타케티 왕밀사초 (*Carex taquetii* H.Lév.)
한라돌창포 (*Tofieldia taquetii* H.Lév. & Vaniot.)
제주암고사리/섬잔고사리 (*Diplazium taquetii* C.Christ.)
큰개수염 (*Eriocaulon taquetii* Lecomte.)
죽대 (*Polygonatum taquetii* H.Lév. & Vaniot.)
한라송이풀 (*Pedicularis taquetii* P.C.Tsoong.)
참지네고사리 (*Dryopteris taquetii* Christ.)
한라비비추 (*Hosta taquetii* (Levl.) M.G.Chung & J.W.Kim.)
십자고사리 (*Polystichum taquetii*.)
겨이삭여뀌 (*Polygonum taquetii* H.Lév.)

8) CVH 중국식물표본관(19종, 타케티 2종)

<http://www.cvh.ac.cn/en/>

타케티 제주암고사리/탐라암고사리 (*Diplazium taquetii* C.Christ.)
한라송이풀 (*Pedicularis taquetii* P.C.Tsoong.)

9) 스위스 제네바 식물원(31종, 타케티 3종)

<http://www.ville-ge.ch/musinfo/>

타케티 큰개수염 (*Eriocaulon taquetii* Lecomte.)
사마귀풀 (*Aneilema taquetii* H. Lév.)
궁궁이 (*Peucedanum taquetii* H. Wolff.)

10) 미국 스미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13종, 타케티 1종)

<https://collections.nmnh.si.edu/>

타케티 잠자리피 (*Trisetum taquetii* Hack.)

- 11) 독일 자유대학교 달렘식물원(4종, 타케티 1종)
<http://ww2.bgbm.org/herbarium/>
타케티 큰개수염 (*Eriocaulon taquetii* Lecomte.)
- 12) 네덜란드 생물다양성센터 라이넨대학(타케티1종)
<https://plants.jstor.org/>
타케티 녹나무 (*Cinnamomum taquetii* Lév.)
- 13)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타케티1종)
University of California (UC) (1)
타케티 제주암고사리/섬잔고사리 (*Diplazium taquetii* C. Chr.)
- 14) 스웨덴 자연사 박물관 식물부 (타케티1종)
Swedish Museum of Natural History Department of Botany (S) (1)
타케티 제주암고사리/섬잔고사리 (*Diplazium taquetii* C. Chr.)
- 15) 텍사스 오스틴대학 룬델 식물표본관 (타케티1종)
Lundell Herbarium,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LL) (1)
타케티 큰개수염 (*Eriocaulon taquetii* Lecomte.)
- 16) 캐나다 농업식품부 (타케티2종)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DAO) (2)
타케티 겨이삭여뀌 (*Polygonum taquetii* Lév.)
 평의 다리/ 한라평의 다리 (*Thalictrum taquetii* Lévl.)
- 17) 하버드대학교 그레이 식물표본관 (타케티1종)
The Gray Herbarium (GH) (1)
타케티 평의 다리/한라평의 다리 (*Thalictrum taquetii* H. Léveillé.)
- 18) 오스트리아 빈 자연사박물관 (타케티1종)
<https://herbarium.univie.ac.at>
타케티 잠자리과 (*Trisetum taquetii* Hack.)
- 19) JSTOR Global Plants 세계 식물 디지털 컬렉션(588종, 타케티 175종)
<https://plants.jstor.org/>

20) GBIF 세계 생물 다양성 정보 기구 (타케티 138종)

<https://www.gbif.org/search?q=taquetii>

II -3. 우리나라에 소장되어 있는 에밀 타케 식물표본

2020년 5월 29일에서 6월 7일 대구 드망즈갤러리에서 국내에 소장된 에밀타케 신부의 식물표본을 찾아 전시회를 개최되었다.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대 수우식물 박물관에 31점의 표본과 국립수목원에 16점을 합하여 47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표본들은 이창복(1919~2013) 교수가 영국 에든버러 왕립식물원에서 수집한 타케 채집품들이다. 초기 식물분류학자인 이창복교수는 우리 식물 표본수집과정에서 타케 채집 식물표본을 영국 에딘버러 식물원으로 부터 되돌려 받았다.

다음 <표1>은 서울대학교 수우식물박물관에 소장된 에밀타케 식물채집본의 목록으로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하여 정리한 것이다.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에 올려진 자료를 그대로 정리하였고, 이들 정보는 실제 에밀 타케식물 채집본에 쓰여진 자료를 토대로 정리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누락된 채집 장소 및 시기도 있었다. 서울대에는 18종 타케의 식물 채집본 31점을 소장하고 있다.

<표1> 서울대 수우식물표본관 소장 타케신부의 식물표본 목록

분류	이름	학명	채집장소 및 시기	채집번호
1	개미자리	<i>Sagina Japonica</i>	제주도 한라산, 1909.04 /1908.4.4./1908.4.16	T.2669, T.4606
2	까치박달	<i>Carpinus cordate</i>	제주도 한라산, 909.7	T.3235
3	낭아초	<i>Indigofera pseudotinctoria</i>	제주도, 1908.7.29	T.668
4	느릅나무	<i>Ulmus davidiana</i>	제주도, 1909.8	T.3219
5	두릅나무	<i>Aralia elate</i>	제주도, 1908.8.17	T.894
6	떡갈나무	<i>Quercus dentata</i>	제주도, 1908.7.10	T.1494
7	메밀잣밤나무	<i>Castanopsis cuspidata</i>	제주도, 1909.5	T.2554, T.2556
8	미꾸리납시	<i>Persicaria sagittata</i>		T.5906
9	부처손	<i>Selaginella tamariscina</i>	1910.6.28./1910.10/1910.7.8. /1911.12	T.3662, T.1394 T.3845, T.5493
10	산뽕나무	<i>Morus acstrailis</i>	제주도, 1908.4/1911.5	T.1393, T.1394 T.1395, T.5976(2점)
11	상수리나무	<i>Quercus acutissima</i>	제주도 한라산, 1908.9.4	T.1435
12	솔비나무	<i>Maackia fauriei</i>	제주도, 1907.8	F.1692
13	쇠뜨기	<i>Equisetum arvense</i>	제주도 하논, 1909.5	T.2500
14	조록나무	<i>Distylium racemosum</i>	제주도, 1910, 5.25	T.4252
15	종가시나무	<i>Quercus glauca</i>	제주도, 1908.10/1909.6 /1909.5/1908.10	T.1430, T.2553, T.2558
16	천선과나무	<i>Ficus erecta</i>	제주도 홍로, 1907.7	T.3226

17	큰점나도나물	Cerastium Fischeriaum	제주도, 1908.4/1908.4.8 /1911.5	T.4610, T.5401
18	털고로쇠나무	Acer pictum	제주도 한라산, 1909.5	T.2748, T.2751

참고: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네이버지식백과.

추가로 국립수목원에서 소장중인 에밀타케신부의 식물채집본도 16점 확인할 수 있었다. <표2>는 식물채집본에 수록된 자료가 채집 장소와 시기가 기록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시기나 표본의 모양이나 기타 기록된 자료를 통하여 에밀 타케신부의 채집본으로 추정 분류된 것으로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과 국립수목원의 관계자료를 통하여 작성하였다.

<표2> 국립수목원 소장 타케신부의 채집본

분류	이름	학명	채집장소 및 시기	채집번호
1	개미자리	Sagina Japonica	제주도, 1908.4.4	T.4605
2	꾸지뽕나무	Cudrania tricuspidata	제주도, 1911.9.22	T.6025
3	벼룩나물	Stellaria alsine	제주도 1908.4.6	T.4601
4	붉가시나무	Quercus acuta	제주도, 1909.7	T.2552
5	산골무꽃	Scutellaria pekinensis	제주도, 1910.7.8	T.4373
6	산박하	Isodon inflexus	제주도, 1911.9.1	T.5865
7	소귀나무	Myrica rubra	제주도, 1908.5.20	T.1402
8	신갈나무	Quercus mongolica	제주도, 1909.6	T.2547
9	줄갈참나무	Quercus aliena	제주도, 1907.7	T.2546
10	좀어리연꽃	Nymphoides coreana	제주도 하논, 1908.10.30	T.1516
11	종가시나무	Quercus glauca	제주도, 1906.6.	T.2555
12	천선과나무	Ficus erecta	제주도 홍로, 1912.7	T.3226
13	큰잎피막이	Hydrocotyle nepalensis	제주도, 1912	s.n.(미기록)
14	큰점나도나물	Cerastium Fischeriaum	제주도, 1908.4	T.581
15	탐꽃	Clinopodium gracile	제주도, 1911.8	T.5849
16	털취개풀	Mosla dianthera	제주도 한라산, 1908.4.9	T.1498

참고: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네이버지식백과.

III-4 구상나무와 왕벚나무

1) 구상나무(Abies Koreana E. H. Wilson)

포리신부는 1907년에 두 번째 조선여행을 와서 제주도를 방문했다. 5월말에 부산으로 입국해 목포를 거쳐 서귀포 홍로본당에 8월까지 머물며 타케신부와 함께 한라산 식물채집을 하였다. 5월 17일과 19일에 두 신부는 해발 1,400m에서 ‘쿠살낭’을 발견하였다. 채집된 표본은 미국 하버드대학의 아널드식물원 표본관으로 보냈다. 아널드식물원으로 보내진 구상나무 표본은 이후 10년 가량 방치되다 영국의 식물분류학자 윌슨에 의해 신종임이 밝혀졌다. 식물채집가이자 식물분류학자인 윌슨은 1917년 10월 31일 일본의 식물학자 나카이 다케

노이신과 함께 한라산에 올라 채집한 구상나무를 1920년 아널드식물원 연구소보고서에 실었다. 나카이는 1901년 왕벚나무의 학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한 마쓰무라 진조의 제자이다. 연구보고서 1권 3호에 ‘구상나무’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라산과 한반도 남부지방에만 서식하는 토종 ‘아비에스 코레아나’라고 명명하게 된 것이다. 윌슨이 구상나무이름을 명명했기에 학명은 ‘Abies Koreana E.H.Wilson’이다. 일제 강점기에 제국주의적 식물학자인 나카이는 1913년 구상나무를 분비나무로 착각하는 바람에 학명에 나카이라는 이름이 등재되지 못했다. 자칫하면 ‘아비에스 코레아나 나카이’라는 이름으로 신종 등록될 뻔했다. 하지만 우리 식물학명에 나카이라는 이름이 아주 많다. 타케신부가 있던 홍로성당에서 나카이는 10일 정도 머물면서 에밀 타케신부의 식물표본 특히 양치식물을 가져간 증거가 있다. 그들은 식물 사냥꾼이었다.

타케신부는 1907년에 약 500개, 1908년에는 2,000개, 1909년에 1,000개, 1910년 1,300개, 1911년에 1,200개, 1912년에는 200개의 식물을 채집한 것으로 확인된다. 식물표본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한라산 2,196개, 제주시 1,882개, 홍로 1,306개, 효돈 246개, 서귀포 153개, 영실 195개, 목안 100개, 녹하지오름 95개, 하논 246개로 기록된다. 현재까지 탐색결과 1만여 점이상으로 추정되는 에밀타케 신부의 식물표본도 대체로 영국 에든버러왕립식물원(3,000점 이상), 파리 국립자연사박물관(사초과 표본 322점) 그리고 교토대학교과 도쿄대학에 보내졌다.

에밀 타케신부를 조사하다가 우리 식물학과와 관련된 친일 실상 또한 결국은 우리 식물학역사와 얽힌 또 하나의 한계였음을 실감하게 했다.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립수목원에서는 ‘우리 식물주권바로잡기’를 통해 소나무를 비롯한 우리의 풀과 나무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었다. 우리의 자생식물 4,173종의 영어명을 새로 지어 발표한 것이다. 우리나라 식물의 어느 곳보다 다양한 생태환경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가 식물 연구와 보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식물의 일제 강점기 잔상을 걷어내고 당당한 우리 강산의 우리 식물 확산에 좀 더 많은 관심 갖기를 촉구한다.

2) 왕벚나무(*Prunus yedoensis* Matsum.)

국내에서는 왕벚나무에 대한 1908년 4월 14일 한라산 북측의 관음사 근처, 해발 약 600미터 지점의 숲 속에서 타케 신부가 세계 최초의 왕벚나무 표본(표본번호 4638번)을 채집되었다고 기록하였고 그 후 1912년에 독일 베를린 대학의 쾨네(Koehne) 박사를 통해서 제주가 왕벚나무 자생지임이 최초로 알려졌다. 모든 식물표본에는 처음 발견했을 당시 상황을 기록한 원기재문이 있다. 타케신부의 채집품 4638과 1908년 4월 14일의 채집 원기재문에는 ‘Quelpaert Hoatien 600m’로 정리되어 있다. 제주도에 있는 조계종 관음사는 1908년에 창건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타케신부에게 관음사가 전혀 생소한 곳은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서귀포 홍로에서 그 먼 곳 관음사까지 채집하였다고 자생지마다 페널에 기록하는 것은 소설과 같은 이야기이다. 왕벚나무 학명을 주체적으로 개명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자료에서 타케신부는 서귀포의 홍로를 중심으로 채집활동을 하였고 한라산의 경우는 주로 돈내코 계곡에서 한라산 정상으로 올라서 영실 쪽으로 내려오는 코스를 5년간 수차례 오르면서 채집을 하였다. 채집지역이 홍로 근처와 서귀포 근방이며 현재는 모두 도시화가 돼서 과거 채집지역은 현재 사라진 숲의 주변이나 논, 밭 등의 잡초 밭이었다. 한라산 7-800 m 이상의 고도 식물은 현재 일부 남아 있지만 홍로 근방과 주변 식생까지 포함한다면 아마도 20%-25% 정도 이상은 서귀포 근처 채집품이며 한라산 채집품도 25% 정도가 된다¹¹⁾. 즉 당시 채집지역은 서귀포 홍로 근처인 효돈(Hoatien)이라는 동네나 혹은 칩발에서 채집하였다. 그날 채집한 식물은 올벚나무, 산철쭉, 채진목과 고깔제비꽃, 잔털제비꽃, 땃시제비꽃 그리고 각시붓꽃을 채집해서 주로 숲 주변 식생으로 타케신부는 관음사로 간 적이 없고 주로 채집은 한라산 남사면 쪽을 채집하였다. 숙소인 홍로를 주변으로 대부분 30km 내 채집이고 지명은 거의 95%가 이 지역 내 지명들이다. 타케신부의 채집 기록에 나오는 지명은 제주도의 표선, 법환리, 산방산, 싹섬, 밤섬, 녹하지, 성산, 대정, 중문리, 도순리, 토평리, 영실, 모슬, 효돈, 호근리, 하논, 월평, 솔밭 등이 확인된다.

자생지논란 가운데 제주도 봉개동 해발 607미터 개오름에서 265살 최고령자생 왕벚나무가 발견되었다. 국립 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가 한라산에서 발견한 자생종 왕벚나무 235그루가 있다. 생태와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즈음에 왕벚나무의 전 국토 확산세와 한·일간의 자생지 논란 그리고 제주에서 지켜온 우리 나무 왕벚나무를 대신하여 제주도가 자생지와 채집장소를 확인하여 정확히 기록에 남겨야 한다. 그리고 자생지 왕벚나무를 제주 타케식물로서 전국의 일본산 소메이요시노 가로수가 노령수로 교체될 때 제주 자생종 왕벚나무가 그 자리에 차지하여 국민들에게 바르게 인식되어 지길 기대한다.

Ⅲ. 결론

본 연구는 에밀 타케 식물 표본에 대한 분류학적 검토나 선교사로서 종교 구원론적인 역할에 대한 탐구가 아니다. 그 작업들은 식물분류학자나 신학자가 해야 할 몫이다. 이 작업은 현재 긴급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재 인간과 자연이 처한 상황에 대한 종말론적인 상황을 직시하고 “식물 존재에 대한 대안적 비전”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즉 식물이 우리를 구할 구세주 메시아로 찾을 수 있을까이다.

역사적으로 인류가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긴 적이 거의 없다.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내전 상태이다. 이 팬데믹 내전은 인류전체의 생존가능성뿐만 아니라 지구 생명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한 판과 구도의 문제이다. 생태위기의 적신호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백신을 빨리 생산해서 자본주의의 등가교환의 세계 비즈니스를 장악하겠다는 태도는 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세계관, 고정관념, 패러다임 등 이른바 구 우주론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할 때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와 전혀

11) “식물채집가 E.J. Taquet 신부의 9년간(1906-1914년) 제주도 기록”, 장진성, 2019.

다른 우주론, 생태적 정체성, 생태적 시민권과 주체적 활사개공을 통하여 “문화적 혁명”을 주도하는 방향성을 타야 한다.

지금까지 갈릴레이- 뉴턴- 케플러- 다윈의 우주론은 종교이든지 과학이든지 계층적 우주론, 사다리꼴 우주론, 기계적 우주론으로 인본주의를 최정점으로 하여 인간, 동물, 생물, 무생물 등급화하여 가치를 매겨왔다. 신과 인간외 비인간 즉 우주를 물질로 생각하도록 마음대로 지배하고 파괴해도 된다는 우주론을 살아왔다. 그러나 21세기의 우주론은 동그라미 우주론이다. 신우주론은 만물이 하나이며 동질성을 이루며 인간도 종의 일부임을 밝혔다. ‘티끌하나에도 불성이 있다’는 말이고 ‘쌀 한 톨 안에도 우주가 있다’는 종교와 과학적 진화의 통찰이다¹²⁾. 우리는 한 숟밥 식구이며 성경과 불경만이 거룩한 것만 아니라 살아 있는 만물은 모두 거룩하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우주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공동의 기원에서 나왔음을 과학적 우주론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에서 물질이 나오고 물질에서 생명이 나오며 생명에서 의식이 나왔다. 현대 진화의 선봉은 정신이다.

1920년대 에드윈 허블은 우주에는 수백만 개의 은하가 있다는 것과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빅뱅 우주론이다¹³⁾. 이러한 동그라미 우주론 맥락에서 식물을 봐야 한다. 식물은 우리에게 광합성을 통하여 21% 산소를 제공하며 단백질과 아미노산 그리고 미네랄과 약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인류에 요구되는 긴급백신은 식물백신이다. 식물은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는데 우리는 식물을 마구 학대하고 있으며 간섭하지 않는 식물에게서 배워야 하며 “식물 배려의 윤리”는 ¹⁴⁾ 아직도 우리 시야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배경에서 110년 전에 타케와 포리가 채집한 식물 표본들은 지금도 한반도 산하에서 피고 지고 있으며 그 표본의 호적등본들은 디아스포라 난민으로 전 세계의 식물원과 박물관에 식민지화되어 있다. 이곳 제주도안에 이 표본들이 식물주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대 장진성교수는 동경대학에 약 1000점 가까이 표본이 소장되어 있는데 당시 받은 것으로 추측되며 에딘버러식물원에 가장 많은 3천개 표본이 소장되어 있다. 교토대학, 하버드대학, 코마로프식물원들에 각 5-6백개 표본이 소장되어 있다.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지만 타케 신부의 전체 채집 표본 2만점이 넘는 것을 6년간 시도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코로나 즉 바이러스의 역습은 인간이 저지른 생명 다양성의 파괴에 따른 것이며, 앞으로 2050년 까지 그 회복을 위해 인간종도 자연과 공생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 절명의 중요한 시기다.

2014년 바티칸의 가톨릭은 종교개혁에 버금가는 회칙을 지금의 현교황 프란치스코이 반포하였다. 그 회칙은 ‘찬미받으소서’ ¹⁵⁾이다. 가톨릭 교회 역사상 한 번도 생태와 환경에 대한 회칙을 반포하지 않았다. 이 회칙은 현재 공동의 집 지구에 벌어지고 있는 생태위기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응답이다. 이 회칙에서 교황은 신우주론에 입각한 용어를 과감하게 선택하였다. 즉 “우주적 친교”, “통합생태론”, “회개”, “규제 없는 시장에 대한 비판”

12) 『생태평화를 찾아 마을로 간 신부』, 정홍규, 학이사, 2015.

13) 『우주는 푸른용-매혹적인 우주의 창조이야기』, 브라이언 스윙지음, 허찬란옮김, 분도, 2019.

14) 『생태문명의 위기와 대안적 성찰』,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한국학술정보(주), 2012.

15) 『찬미받으소서: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원칙』, 프란치스코 교황 지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옮김, 2015.

등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통합하는 작업을 하였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문자 성경과 식물 즉 식물과 동물 등 창조물 복음을 같은 급으로 제 1 성경 혹은 제 2 성경으로 단언하고 현대 인간중심주의 위기와 영향에 대해 무거운 톤으로 지적하였다. 그리스도교는 너무도 인간중심주의 종교이다. 이제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식물은 성경이다. 한반도의 토종식물은 거룩한 문자이다. 그런 점에서 에밀 타케와 포리 프랑스 선교사 어떤 동기에서 민생식물채집을 하였던 간에 일제 강점기에 나카이 같은 플랜트 헌터에게 식물이 도둑맞지 않고 살아남은 것만 해도 다행한 일이다. 아직도 한국 그리스도교는 문자 성경에 포로가 되어 있으며 식물 성경에는 생태맹이다. 인간만 구원을 하고자 하는 교회나 성당이 하나 둘이 아니다.

제주도에는 타케와 포리에 대한 기념상, 기념비 심지어 대만처럼 동상도 없으며 타케 식물원, 타케 박물관, 타케거리, 타케 온주밀감나무, 타케 토종 약초, 타케 생태관광 안내서, 타케 한라산 올레 등산로, 왕벚나무 자생지, 타케의 날, 왕벚나무 데이, 에밀 타케 유튜브, 다큐제작 등에 관심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선전하는 것은 비자립 개발, 삼다수 고갈, 하논 분화구 호수, 사과리, 흑돼지, 제2공항의 흑색선전이 난무한다. 이러한 취급은 바로 제주도 식물에 대한 영성적 상상력의 빈곤이다. 차라리 타케 야생초 봄·여름·가을·겨울 성지순례, 한라산 풀꽃순례, 한라산 약국, 오름 풀꽃, 타케약초, 풀꽃 채식 등 할 것이 너무 많다. 지구와 한라산의 만물의 4대 원소 그리고 5대 원소 식물에 대한 수직적 사고와 수평적 사고에서 탈주하여 “횡단적 사고”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성경을 덮고 자연을 다시 펼쳐야 인본주의적 종교를 뛰어 넘을 수 있다고 본다.

한국 K- 방역, BTS의 다이내마이트, 영화 기생충이 세계인에게 깊은 인상과 감동을 주었다. 이 정도의 역량으로 제주도도 “미적 창조와 윤리적 발상”에 기초하여 제주도의 식물 리터러시를 주조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벚꽃축제를 통해 일본문화를 알렸다면 우리는 “벚나무의 세계화 과제” 즉 과학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형질의 제주 자생 왕벚나무 품종개발 그리고 인문, 문화, 경제적 측면에서 정부의 협조, 타케 왕벚나무 이야기 개발, 영성과 문화소재 개발, 왕벚나무 프랑스 심기 등 왕벚나무를 세계화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아름다움에 기여하는 심오한 영감의 힘이 들어 있으며 치유와 마음의 평화 그리고 왕벚나무의 삶과 그 나라 영토와 지대를 널리 공유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125년의 역사 속으로』 (범일 성당 화보집, 1889~2014), 범일성당 125주년 역사 속으로 편찬 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범일성당, 2014.
2. 『광주대교구 50년사』, 천주교 광주대교구, 빛고을 출판사, 1990.
3. 『교회사 연구 20』, 한국교회사연구소, 2003.
4. 『드망주 주교 일기』 (1911~1937), 드망주 주교 지음, 한국교회사연구소 역주, 가톨릭신문사, 1987.

5. 『뫼텔 주교 일기 2』(1896~1900), 뫼텔 지음, 최석우 옮김, 한국교회사연구소, 1993.
6. 『뫼텔 주교 일기 3』(1901~1905), 뫼텔 지음, 최석우 옮김, 한국교회사연구소, 2009.
7. 『뫼텔 주교 일기 4』(1906~1910), 뫼텔 지음, 최석우 옮김, 한국교회사연구소, 1998.
8. 『뫼텔 주교 일기 5』(1911~1915), 뫼텔 지음, 최석우 옮김, 한국교회사연구소, 1998.
9. 『뫼텔 주교 일기 6』(1916~1920), 뫼텔 지음, 김성태 옮김,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10. 『뫼텔 주교 일기 7』(1921~1925), 뫼텔 지음, 김성태 옮김,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11. 『뫼텔 주교 일기 8』(1926~1933), 뫼텔 지음, 김성태 옮김,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12. 『성유스티노신학교 1914~1945』, 김정우, 홍익포럼, 2013.
13. 『생태평화를 찾아 마을로 간 신부』, 정홍규, 학이사, 2015.
14. 『세 가지 생태학』, 펠릭스 카타리, 윤수중 역, 동문선, 2003.
15. “숨겨진 보석 제주를 알린 선각자 7인의 발자취”, 좌용철, 제주의 소리, 2010.01.12.
16. 『식물배려의 윤리 주 생태문명의 위기와 대안적 성찰』,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편, 한국학술정보(주), 2012년.
17. 『식물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수잔네파울젠 지음, 김숙희 옮김, 풀빛, 2011.
18. 『식물의 사유』, 루스 이라가레와 마이클 마더 지음, 이명호와 김지은 역, 대안 공동체 인문학 총서 2, 2020.
19. “식물채집가 E.J. Taquet 신부의 9년간(1906~1914년) 제주도 기록”, 장진성, 2019.
20. 『신축교안과 제주 천주교회』, 제주선교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한국교회사연구소, 1997.
21. 『에밀타케신부의 선물』, 정홍규, 다빈치, 2019.
22. 『우주는 푸른용-매혹적인 우주의 창조이야기』, 브라이언 스윙지음, 허찬란옮김, 분도, 2019.
23. 『조선의 선교사, 선교사의 조선』, 조현범,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24.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천주교 제주교구, 도서출판 빅벨, 2001.
25. 『찬미받으소서: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프란치스코 교황 지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옮김, 2015.
26. 『천주교 대구교구 100년사』, 천주교 대구대교구, 분도출판사, 2012.
27. 『천주교 완월동교회 100년 자료집』(1900~2000년), 제천석 신부, 천주교 완월동교회, 2003.
28. 『초기 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 1』, 제주선교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한국교회사연구소, 1997.
29. 『초기 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 2』, 제주선교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한국교회사연구소, 1997.
30. 『펠릭스 가타리의 생태철학』, 신승철, 그물코, 2016 2쇄본.
31. “프랑스 선교사의 한국식물연구”, 이창복, 이문호, 교회사연구 5, 교회사연구소,

1987.10, pp.149-207.

32. 『하논성당 복원 및 성지순례 올레길 조성을 위한 세부 계획』, 서귀포성당설립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사)제주역사문화원, 도서출판 각, 2011.
33. 『한국 가톨릭 대사전』,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34.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50년사』,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도서출판 형제애, 2003.
한라산 구상나무보전전략 마련을 위한 국제심포지엄발표자료집, 2019.11.
35. “다시 읽는 드망즈 주교 일기”, 『가톨릭신문』, <http://www.catholictimes.org/>
36. 일본식물대채집가 URBAIN FAURIE신부
https://www.jstage.jst.go.jp/article/bunruichiri/1/4/1_KJ00002593841/_pdf/-char/ja
37. 포리신부와 식물채집
<http://kmunakata.sakura.ne.jp/hanazono/faurie.html>